

‘박근혜 정부’ 주요 인선 내정자 꼬리무는 의혹들

정홍원, 선관위 시절 부인과 외유성 해외 출장

〈국무총리 후보자〉

곽상도, 저축銀 김찬경 회장 변호 도덕성 논란

〈민정수석 내정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까지 임명한 새 정부 각료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관 내정자들의 일부가 도덕성 및 자질 시비에 휘말리면서 박 당선인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에 내정된 허태열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재산공개시 부인 명의로 신고한 3억5000여만원 상당의 경기도 파주시의 논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97년 8월 토지를 샀는데 부인이 영농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허 내정자는 “처음에 농사를 직접 짓다가 소작을 맡겼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토지 운영을 위탁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이 시빗거리가 됐다. 곽 내정자는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절인 2005년 7~8월

멕시코와 브라질, 페루, 미국 등지에 임명된 새 정부 각료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관 내정자들의 일부가 도덕성 및 자질 시비에 휘말리면서 박 당선인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자신의 손위 처남이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가 지난 12월 제3차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는데 주가가 상당한가를 기록해 장관 지명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국회의원 시절인 2009년 2월 지역구인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증설 계획을 갖고 있던 한 골프장 대표와 증설 허가권을 가진 해병대 사단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부인이 1988년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부인만 서울 둔촌동 집에서 하계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터졌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해양수산개발원에 근무하던

2006년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31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는 의혹이 나왔고,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2007년 법무부 근무 당시 경기도 동창이던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후원금 10만원을 낸 것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위반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민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고 벌금 내고 감옥에 가는데 박근혜 정부 내각은 법을 위반하면 장관이 되나”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종훈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내정자는 ‘수입종훈’,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뱅크런오석’,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브로커병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두드러기교안’, ‘전관예우교안’이란 별명이 붙었다”며 장관 내정자를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날치기’ 처리를 선언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5월 전대’ 힘겨루기

전준위-비주류 반발 속 차기 당권투쟁 격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5월 정기 전당대회 개최 결정을 놓고 전대준비위원회(전준위)와 비주류가 강력 반발하는 등 전대 물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 국면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특히, 비대위의 안이 확정되면 새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포함, 2년 임기를 보장받는데다 시도당 및 지역위 개편 과정에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심기 위한 계과 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차기 당권투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비대위의 전격적인 결정에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다.

당장 전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위의 결정을 강력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성곤 전준위원장과의 사퇴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준위원회의 집단 사퇴와 전준위 해산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그룹인 새신모임도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비대위 결정을 강하게 성토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당내에서는 비대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대 시기를 5월로 늦춰 대선 패배의 책임론을 희석시키는 한편, 정기 전당대회에 따른 시도당 및 지역위 개편을 통해 자파 인사들을 대거 심어 당내 주도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주류 측 인사는 “정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도당과 지역위 개편 과정에서 자기 세력을 심으려는 혈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며 “비대위가 내세우고 있는 뼈를 짚는 혁신이 이런 것인지 참모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권 안팎에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정계복귀 압박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대물을 둘러싼 당내 분열 양상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의 입지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극단적인 갈등을 피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결국 비대위 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면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전대를 앞두고 세력 확산을 위한 일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개헌추진 모임’ 첫 회의

여야 의원 70여명 참여...간사에 이군현·유윤근 의원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이 참여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19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첫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재오 정의화 권성동 김용태 신성범 의원 등 10명이, 민주당에서 박지원 유윤근 유인태 정병헌 이낙연 의원 등 15명이 각각 참석했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는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으며,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과 민주당 합당 유윤근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재오 정의화 권성동 김용태 신성범 의원 등 10명이, 민주당에서 박지원 유윤근 유인태 정병헌 이낙연 의원 등 15명이 각각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21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도 연달아

오는 20일과 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7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개최될 예정이다. 우선, 지난 13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정안이 15일 국회에 접수되면서 26~28일 사이에는 각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청문회 개최 시기는 각 상임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일인 25일을 넘어선 시점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28일에 개최하기로 했고, 국방위원회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서남수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청문회는 28일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청문회는 27일로 잡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27일과 28일 중 하루에 실시키로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진룡 문화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26일 열기로 의결을 모았다.

한편, 지난 17일 발표된 11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3월 초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조직개편 협상 교착 속 날선 ‘신경전’

김기현 “일 할 도구도 안 준 야당의 횡포”

박기춘 “이한구 ‘날치기’ 처리 선언” 비판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야는 19일 상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공방전을 펼쳤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1·2차 시한(14, 18일)을 모두 넘겼으며 현재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각종 채널을 동원해 물밑 조율 중인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행안위 안전조정위 설치를 요구하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힌 데 대해 “협상 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이라고 맹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날치기 폭력을 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방어에 나설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책임 있는 협상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통위 기능 이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작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 통합을 의미한 채 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고집한다면 방송 장악이라는 잣대에만 관심을 가진 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2012. 3. 4(월) ~ 2013. 6. 17(금) (총 90시간)
 · 수강료: ₩360,000
 ● 모집인원: 기초반 주간반: 30명 / 기초반 야간반: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 ~ 17:00 / 야간반 18:00 ~ 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한자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Sthe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김치자격증반 · 대회반
각 선착순 10명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강사진
 ■ 푸드코디네이터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백석문화대학교 이진하 교수 (경기대학교 식공간 연출 석·박사)

김치 자격증반 · 대회반 강사진
 ■ 김치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한국 음식 대가 구분길 부학장 (고려전문학교)
 ■ 한국 관광 대학 호텔조리과 김옥란 교수 (경기대학교 외식조리 석·박사)
 ■ 현. 신라호텔 한식과장 백영란 교수

한식조리기능사 게재제 실시(수시개강)

Sthe1 요리학원 문의 전화 062-385-0723 / 금호파출소 건너편

투자 하실 분

▶ 물건: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 보장: 등기/근저당 설정
 ▶ 자금: 1억원 이상
 ▶ 기간: 1년정도
 ▶ 수익: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 분야: NPL과 특수물건
 ▶ 시간: 주1회, 2시간 / 3개월 과정
 ▶ 특징: 배우면서 투자가능 / 1인1물건 낙찰보장
 ▶ 수강료: 550만원

(주)오현경매 H.010-4667-93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인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환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3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60만원 임대중
 3. 매매가, 9000만원
 4. 문의: 010-3605-5000

매매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4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50만원 임대중
 3. 매매가, 9000만원
 4. 문의: 010-3605-5000